



서종욱 조선대 의대 총동창회장, 1억 기부

조선대학교병원(병원장 김경중)은 서종욱 조선대 의과대학 총동창회장으로부터 지난 7일 의과대학 1호관에서 새병원 신축을 위한 발전기금 1억원을 전달받았다. (사진)

9일 조선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이날 기부식에는 김경중 병원장, 서종욱 의과대학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15여명이 참석했으며, 기부금은 새병원 신축을 위한 예산으로 쓰일 예정이다.

기부에 참여한 서종욱 의과대학 총동창회장은 “조선대 의대와 병원이 함께 발전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하게 됐다”면서 “새병원 신축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새병원 신축을 위해 교직원, 동문들의 기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병하기자



전남농협, 광주전남팜스테이협 정기총회

농협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9일 영암군 금정면 신유토 마을에서 광주·전남팜스테이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해 농촌관광 활성화 및 팜스테이 마을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광주·전남팜스테이협의회는 24개 마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주요안건과 더불어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 및 팜스테이 조성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해 홍보 서포터즈 역할을 수행하기로 다짐했다.

팜스테이사업은 농협이 1999년부터 도시민들의 관광수요를 농촌으로 흡수하고자 농촌생활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농촌체험관광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진용 기자



광주대, 퇴직교직원 송공패 수여식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가 지난 8일 학교 행정관 회의실에서 2022학년도 2학기 퇴직 교직원 송공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

9일 광주대학교에 따르면 이번 퇴직 교직원 대상자는 이정현 부동산학과 교수와 박우미 패션·주얼리디자인학부 교수, 장하경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중권 문헌정보학과 교수, 윤경자 생활관 관장, 유준 총무처 팀원이다.

김동진 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30년 넘는 세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교직원님께 구성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리며, 돌이켜 보면 한 해도 쉬은 해가 없었는데, 어렵고 도전적인 환경을 극복해 주셔서 거듭 감사드리고, 앞으로 다가올 학령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병하기자



전남대 '카카오 테크 캠퍼스' 개발자 양성

전남대학교가 지난 8일 (주)카카오와 '카카오 테크 캠퍼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9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주)카카오가 전남대를 비롯한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들과 손잡고 지역 인재 양성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1기 카카오 테크 캠퍼스에는 전남대학교와 부산대학교가 참여한다.

'카카오 테크 캠퍼스'는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개발자 양성을 위해 지역 대학과 협업체 운영을 하는 기술 개발자 양성 프로그램이다. 카카오는 카카오의 ESG 방향성인 '기술과 사람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학교와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한다.

카카오 테크 캠퍼스 1기는 3월에 학교별 모집을 시작해 교육은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노병하기자



화순전대병원, 카피라이터 정철 초청강좌

화순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용연)은 지난 6일 병원 대강당에서 역발상의 대가 정철 카피라이터를 초청해 2023년 2월 채용강좌를 개최했다. (사진)

9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한 채용 강좌는 직원 소양 증진과 존중·배려문화 함양 등을 위해 마련한 특색있는 인문학 강좌다.

'머리를 9하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강좌에서 정철 카피라이터는 머리를 가지고 노는 아홉 가지 방법으로 찾자·떨자·참자·묻자·놀자·돌자·따자·하자·영자를 제시했다.

한편 정철 카피라이터는 정철 카피 대표 겸 단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초빙교수이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사람이 먼저다'와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등의 유명 카피를 썼다.

주요 저서로 영감달력, 카피책, 누구나 카피라이터, 내 머리 사용법, 사람 사전, 한 글자 등이 있다. 노병하기자



서부소방, 취약계층 소방안전 지원 협약

광주 서부소방서(서장 문희준)는 9일 광주장애인체육회와 지역사회 소방안전문화 정착·화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식에는 서부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 및 한상득 광주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 장애인이 건강하고 소외되지 않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전문화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분기별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업무협약 내용으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양 기관 주관 훈련 및 교육활동에 관한 상호 협력 등 중점으로 협약을 체결했으며, 장애 유형별 특성에 따른 교육 제공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 안전문화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문희준 서부소방서장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제공하여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혜인 기자

“연진아, 나의 지옥에 온 걸 환영해”

‘더 글로리2’ 티저·포스터 공개

9일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2 (사진)’가 티저 예고편과 캐릭터 포스터 8종을 공개했다.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문동은’ (송혜교)의 본격적인 복수극이 펼쳐진다.

영상은 “용서? 누가누굴? 난 잘못한 게 없어 동은아”라며 사악하게 웃는 ‘연진’ (임지연)의 얼굴로 시작된다. 동은은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 연진에게 분노하고, 더 잔혹한 복수를 다짐한다.

동은에게 아픔을 준 ‘해정(차주영)’, ‘재준(박성훈)’, ‘이사라(김희어라)’는 고통의 나날을 보낸다. 파트1 말미 사라졌던 ‘손명오(김건우)’도 보인다. “환영해, 연진아”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위태로운 표정으로 어딘가를 바라보는 동은으로 영상은 끝난다. ‘더 글로리’는 유년시절 학교 폭력으



로 영혼까지 부서진 동은이 치밀하게 준비한 복수와 그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지난해 12월 파트1이 공개되자마자 연일 화제에 오르며 큰 인기를 끌었다.

‘더 글로리’ 파트2는 내달 10일 공개된다. 뉴시스

유아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입건

경찰 조사에 차기작 비상 소속사 “적극 소명할 것”

배우 유아인(임홍식·37·사진)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출연한 각종 영화·드라마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경찰이 유아인의 체모를 감정 의뢰하고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렸다는 점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충분한 단서를 이미 확보한 상태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유아인이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나고 기소돼 재판까지 가게 되면 유아인의 연기 활동 중단 기간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

연예계 관계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아무리 못해도 유아인은 1년 정도 전혀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유아인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는 유아인이 반복적으로 프로포폴을 처방받지 이를 수습하여 여러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6일 마약 검사를 위해 유아인의 체모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게 감정 의뢰했다. 또 유아인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유아인 소속사 UAA는 “유아인이 최근 프로포폴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관련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 심리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뉴시스



25년 만에 재개봉 ‘타이타닉’... 첫날 박스오피스 2위

1998년에 나온 영화 ‘타이타닉(사진)’이 재개봉 첫 날 박스오피스 2위에 오르는 저력을 보여줬다.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지키며 25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뒀다.

‘타이타닉’은 8일 4만1757명이 박스오피스 2위로 출발했다(영화진흥위원회 기준). 영화는 9일 오전 9시 현재 예매 관객수 6만1090명으로 1위를 달리고 있어 주말 흥행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타이타닉’은 ‘아바타’ 시리즈를 만든 제임스 캐머런 감독 작품으로 개봉 당시 전 세계에서 약 22억 달러(약 2조 7620억원)를 벌어들여 역대 박스오피스 3위에 올라 있는 작품이다. 역대 박스오피스 순위 1~30위 중 1990년대 영화는 ‘타이타닉’이 유일하다. 국내에서



도 약 400만명(비공식 집계)이 봤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다. 이번 재개봉한 ‘타이타닉’은 4K 리마스터링해서 나왔다.

영화는 1912년 북대서양에서 빙하와 충돌해 침몰한 당시 세계 최대 여객선 타이타닉호 실화를 담았다. 케이트 윈슬렛과 리어나도 디캐프리오가 주연을 맡은 ‘타이타닉’은 1998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감독상 등 11개 부문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뉴시스